

## 제 5 차

# 한·일 과학기술 장관회의

## 9個項에 意見一致코 共同聲明發表

太陽熱 에너지利用 鑛物資源 開發

Remote Sensing 專門家育成 協力

原子力 平和利用 核擴散防止 協力

## 科學技術 相互協力과 友好增進 다짐

第5次 韓·日 科學技術長官會議가 지난 7月 25日과 26日 兩日間 日本 東京 “호텔 오쿠라” 회의실에서 開催되었다.

이번 會議에 韓國側은 崔亨燮科學技術處 長官을 首席代表로 하여 崔鍾洸(工業振興廳長), 崔善來(駐日 韓國大使館公使) 韓相準(한국 과학기술 연구소장), 黃海龍(과학 기술처 과학기술 심의관) 林瑢圭(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李鍾秀(駐日한국대사관 과학관) 辛成梧(駐日 한국대사관 일등서기관) 趙滿(한국원자력 연구소 核工學室長) 張性泰(과학기술처 지역 협력과장) 金亨奎(과학기술처 장관 비서관)이 참석 하였으며 日本側에서는 宇野宗佑(國務大臣 科學技術廳長官)를 首席代表로, 伊原義德(科學技術廳 事務次官), 窪田雅男(通商産業省 工業技術院長), 園山重道(科學技術廳 研究調整局長) 杉浦 博(科學技術廳 振興局長), 牧村信之(科學技術廳 原子力安全局長), 走羽信久(科學技術廳 官房參事官), 菅原敏夫(科學技術廳 振興局 國際課長) 川崎雅弘(科學技術廳 原子力局 調查國際協力課長) 木幡昭七(外務省 經濟協力局 技術協力 第1課長) 遠藤哲也(外務省 亞細亞局 北東亞細亞 課長) 代表들이 參席했다. 그리고 日本側 實務者가 通商

産業省 厚生省 農林省 郵政省 勞動省 文部省 建設省 環境省 國土廳 등에서 高루 派遣되어 왔다.

日本 宇野 科學技術廳 長官은 開會辭에서 第5回 韓日科學技術 大臣 會談을 開催하게 됨이 韓·日兩國의 科學技術發展과 友好增進에 깊은 意義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韓國은 科學技術의 發展을 基礎로 하여 눈부신 經濟發展을 이룩하고 있다고 致賀했다.

宇野長官은 「食糧等 에너지 資源의 逼迫과 環境問題等, 世界的으로 커다란 變化의 時代를 맞아 科學技術의 任務가 한층 그 重要性을 더하고 있다고」 말하고 日本은 資源制約의 克服과 國民健康의 維持增進, 國際協調에 重點을 두고 施策의 推進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韓·日 兩國間에 科學技術情報, 原子力 平和 利用, 海洋開發 等 廣範한 科學技術의 分野協力이 進展됨과 兩國의 發展에 有效하게 寄與하고 있음은 기쁜일이다」라고 했다.

한편 崔亨燮 科學技術處長官은 答辭에서 1968年 以來 4次에 걸쳐 兩國의 共同關心事에 關한



<AP 電送 合同通信>

意見交換은 兩國의 科學技術協力の 土臺를 다졌다고 말하고 「오늘날 科學技術은 人類共通의 貴중한 資産으로써 이의 發展과 善用을 爲한 國家間의 協力은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今般會議를 通해 科學技術은 勿論 經濟·社會·文化等 諸分野의 協力增進에 寄與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崔長官은 「世界的인 問題로 擡頭되고 있는 食糧 및 資源과 에너지 問題, 工業化 促進에 따른 環境保存問題等에 對處하기 위한 手段으로는 科學技術協力を 通한 國家間 協력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強調했다.

한편 이에 앞서 7月 25일에 호텔 오쿠라 “아스가노마”에서 열린 實務者會議에선 韓國 林啓圭 (科學技術處 技術協力局長) 日本 杉浦 博 (科學技術廳 振興局長)를 首席代表로 하여 討議가 進行되었다. 討議된 概要는 다음과 같다.

가. 實務者 會議 議事報告書案의 作成者로서 日本側에서는 菅原國際課長, 池田 同課長, 補佐

및 中川 同課長補佐가 韓國側에서는 李 科學官 張地域協力 課長 및 趙核工學室長이 各各 指名 되었다.

나. 日本側으로 부터 지금까지의 兩國의 協力 狀況에 對하여 資料에 따라 說明이 있었고 韓國側은 이를 諒解하였다.

다. 今後의 協力에 關해서는 1976年 12월에 開催한 韓·日 科學技術長官會議·實務者 會議에서의 合意事錄을 雙方은 確認하였다.

한편 이번 會議에서는 韓國側으로 부터 새로이 韓國商工部 工業振興廳 試驗設備擴充에 따르는 協力.

品質管理에 關한 協力 및 兩國 과학기술정보 센터 等 諸機關間의 協力에 關한 提案이 있어 兩國은 今後 그의 協력이 促進을 爲하여 努力할 것에 意見一致를 보았다.

이어서 日本側은 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와 韓國 과학기술정보센터 間에 覺書의 期間을 延長할 것을 提案한데 대하여 韓國側은 이에 同意하였다.